

[2015년 5월 12일의 노래] 희한한 시대_옥상달빛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과격한 투쟁은 나랑 안맞는 것 같았고,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럴듯한' 직업을 찾았다.

'그래 기자가 돼서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를 전하자'

이러한 이유로 진보적 성향의 매체에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취업은 녹록치 않았고 '산전수 전공중전'을 겪은 후, 내가 자리를 잡은 곳은 한 잡지사였다. 잡지를 만들면서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부르짖진 못해도, 최소한 보통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기사를 쓰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그런 기사를 쓰는 일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괴로웠다. 회사에서 원하는 기사는 대중을 쉽게 현혹해 판매부수를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였다. 조직의 논리에 맞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것, 결국 조직의 부속품에 불과한 내 삶의 자리, 노예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며 짐을 쌌다. 남은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 여기 만큼 안정적인 직장이어뎠다고. 잠시 눈 딱 감고 버티. 윗사람들한테 덤빌 생각하지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다 해결돼'라고 조언했다. 두려웠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이들처럼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더이상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나 지위에만 목숨거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결국 난 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지금은 기록학을 공부하고 있다. 조직에서 배운 것은 '정의'란 없다는 것인데, 다시 돌아온 학교에서는 여전히 '진리와 정의'는 있다고 말해준다. 눈과 귀를 닫고 '닥치고' 자기 일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회사와는 달리, 기록학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고 다시 날 설득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내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되어 업무의 효율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한다면, 나와 일하는 누군가는 저녁이 있는 삶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사랑할 시간이 생길 것이고,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생길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세상은 '눈감고 귀닫고 입을 막으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매일 나를 설득하지만, 나는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매일 허망함을 안고 잠자리에 들기보다는 그래도 함께 행복해지는 미래를 꿈꾼다.

이 노래는 내 얘기다. 오늘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나에게 20만원이 남아있다. 공부를 하면서 몹시 가난해졌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희망을 안고 기록학을 공부하는 일이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 열심히 생각한다.

회한한시대_옥상달빛

어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행복할거야
너는 톱니바퀴 속
작고 작은 부품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회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마지막
저금통장에 들어있는
19만원을 들고서
나는 어디로 갈까

울지마 달라질 건 없어
울지마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
가만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럼 지금보다
행복할 거래

너는 바뀌지 않을
글자를 보면서
다시 써볼까 상상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회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생각한다

마지막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19만원을 들고서
나는 어디로 갈까

울지마 어쩔 수 없다고
울지마 네가
잠자코 있었으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고 살면
그럼 지금보다
행복할거래

그래도 세상 한 가운데
어차피 혼자
걸어가야만 한다면
눈 뜨고 잘 듣고
목소릴 내보면
그럼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그리고는 천천히
살아가는 거지

<http://music.naver.com/artist/videoPlayer.nhn?videoId=50721>



희한한 시대
옥상달빛 - 희한한 시대 :: 네이버 뮤직
music.naver.com
[본문으로 이동](#)